

특수 화이트카본 수입 급증세

건축경기 호조로 실리콘용 등 수요증가 따라

91년 화이트가본(White Carbon)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.

화이트카본 수입업체에 따르면,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고급 페인트용·우레탄용 등으로 고가품인 수입물량이 91년 건축경기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91년 상반기 수입실적을 보면 고려화학이 도료·실란트용으로 79만7000달러를 수입, 전년동기대비 86.6% 증가했으며, 대구사 코리아가 타이어·페인트용으로 68만7000달러를 수입, 전년대비 183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럭키디씨 실리콘이 실리콘 건축용 마감재로 49만달러를 수입, 동기대비 167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, 상반기 총 수입물량은 719만5000달러로 동기대비 24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따라서 91년 화이트카본 총 수입규모가 90년의 1271만여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데, 이는 주요 수입업체인 고려화학이 건축경기 호조로 91년 하반기 92만달러를 추가 수입할 계획이며, 럭키디씨 실리콘도 20~30%의 수요증가가 예상, 60만달러의 제품을 추가 수입 예정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.

한편, 화이트카본의 국내수요는 5만5000톤, 281억원 규모로 수입차지 비중이 23.5% 수준이며, 신발·타이어 등 고무제품용, 일반 페인트 및 종이·치약 등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불화학이 (생산능력 5만 2000톤) 국내 공급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2/1/1>